

또래 거부에 대한 친구의 사회적 행동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적 영향*

The Interactive Effects of Friend Social Behaviors and Friendship Quality on Peer Rejection*

가톨릭대학교 아동학 전공
부교수 신 유 림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Associate Professor : Yoolim Shi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 |
| 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similarities in behavioral characteristics between children and their friends. Aggression and withdrawal behaviors, in conjunction with the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and characteristics on peer rejection were analyzed. The participants were 414 fifth and sixth grade primary school children recruited from public schools in Bucheon city. Firstly, the peer nomination index was used to assess aggression, withdrawal, and peer rejection. Secondly, children reported on the quality of their friendships using the Friendship Quality Scale. The results indicates similarities in aggression and withdrawal between children and friends. Friends' aggression and withdrawal characteristics predicted children's peer rejection, which was more pronounced with higher friendship quality.

주제어(Key Words) : 또래 거부(peer rejection), 공격성(aggression), 위축성(withdrawal) 친구관계 질(friendship quality)

Corresponding Author : Yoolim Shin, Department of Child & Family Studie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Bucheon, Gyonggi-do, 420-743, Korea Tel: +82-2-2164-4487 Fax: +82-2-2164-4485 E-mail: yoolim@catholic.ac.kr

* 본 연구는 2008년도 가톨릭대학교 교비연구비 지원에 의해 이루어졌음.

I. 서론

학령기가 되면 아동들은 학급에서 서로가 좋아하는 몇 명의 또래들과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며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특히 아동기 후반이 되면 아동들은 가장 친한 친구인 단짝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Medrich, Rosen, Rubin, & Buckley, 1982), 서로에 대하여 잘 알게 되는데(Ladd & Emerson, 1984) 이러한 조건은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의 행동특성에서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요인일 수 있다(Haselager, Hartup, van Lieshout, & Riksen-Waleaven, 1998). 또한 가장 친한 친구 관계는 아동의 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가장 친한 친구는 아동의 자아 정체감의 발달에 도움을 주며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해주는 기능을 한다(Berndt & Perry, 1986).

Epstein(1989)은 아동들 사이에 이러한 친구관계가 형성되는데 기본이 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아동들이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맥락 내에서의 근접성이며, 둘째, 아동의 나이, 성, 인종과 같은 물리적인 특성에서의 유사성이다. 셋째, 사회적 행동, 태도, 흥미 또는 성격과 같은 심리적 특성에서의 유사성으로 이는 친구관계가 형성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실제로 친구관계를 형성하는 아동들은 행동특성, 태도 및 능력과 같은 측면에서 서로 유사했으며, 이러한 유사성은 친구사이인 아동들이 함께 많은 시간을 친밀하게 지내면서 더욱 증가하게 된다(Haselager *et al.*, 1998).

친구관계인 아동들 사이의 유사성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반사회성이나 약물 사용 및 흡연과 같은 비행행동에 초점을 두었으며 발달적으로 이러한 이탈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다(Cairns, Cairns, Neckerman, Gest, & Garipey, 1988; Dishion, Andrews, & Crosby, 1995). 초등학교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를 보면 학업성취도나 학교에 대한 태도와 같은 학교적응에 관련된 변인에서의 유사성을 살펴본 소수의 연구들(Berndt, Hawkins, & Jiao, 1999; Haselager *et al.*, 1998) 제외하고 공격성 및 위축성과 같은 사회적 행동측면에서의 유사성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발달적으로 아동기 후기는 아동들이 부모로부터 벗어나 친구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이므로 이때의 친구관계는 아동의 사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며, 특히 어떤 행동 성향을 보이는 또래와 친구관계를 맺는가는 친구관계의 경험이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친구관계인 아동들 사이의 유사성 원리에 기초해 볼 때, 공격성과 위축성과

같은 부적응 행동 측면에서 유사한 아동들 사이에서 형성된 친구관계는 발달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또래 거부는 아동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을 예언해주는 주요 원인으로 연구자들에 의해 주요 관심이 되어왔다. 아동의 공격성과 위축성은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야기시키는 대표적인 행동특성이나, 또래 거부는 아동의 개인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아동이 상호작용하는 친구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Bierman, 2004). 아동이 학급에 있는 여러 명의 급우들 중에서 특정 아동을 친구로 선택했다면 그 친구가 갖고 있는 행동 특성은 아동의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나유미, 2000; 문은정, 심희옥, 2001; 이은해, 김정운, 오원정, 2001; Berndt *et al.*, 1999). 따라서 친구가 친사회적이며 또래들로부터 인기가 높은 긍정적인 특성을 보이는지 반대로 친구가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부적응 성향을 보이는가에 따라 함께 어울리는 아동의 또래 집단 내에서의 사회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공격적인 성향을 지닌 아동이 자신과 유사한 공격적인 친구들과 관계망을 형성한다면 이를 통하여 공격성이 더욱 강화하게 되며(Cairns *et al.*, 1988), 이들은 학급의 교우들에게 갈등과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상황을 빈번하게 야기 시키게 될 수 있으므로(Grotperter & Crick, 1996), 이는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동기 후기가 되면 위축성은 또래들에 의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는 행동특성으로 Rubin, Wojslawowicz, Rose-Krasnorm, Booth-Laforce와 Burgess(2006)는 위축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과 일반 아동들의 단짝 친구관계를 비교한 연구에서, 위축적인 아동의 친구들은 일반 아동의 친구에 비해 위축성의 정도가 높았으며 이들의 친구관계 질도 갈등 정도가 높은 반면에 긍정적인 상호교환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유림(2007)의 연구에서도 위축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은 자신과 같이 유사한 위축적인 성향을 보이는 또래와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일반 집단의 아동과 비교해 볼 때 친구관계에 대한 질을 낮게 지각하고 있었다.

친구의 행동특성이 아동의 또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력은 친구관계의 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즉 친구의 행동특성은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질과 상호작용하여 아동의 또래 거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Berndt *et al.*(1999)는 이러한 상호작용 영향을 설명해주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가설을 제안하였다. 첫째는 확대 가설(magnification hypothesis)로 친구의 행동 특성은 친구관계가 친밀하고 밀접할수록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사

회합이론에서 볼 때 아동은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그 친구를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된다(Berndt *et al.*, 1999). 확대 가설에 기초해볼 때 친구가 공격성이나 위축성과 같은 부정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고 이러한 친구들과 높은 질의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면, 친구의 행동특성이 아동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더 클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해주는 연구결과를 보면, Dishion, Andrew와 Crosby(1995)의 연구에서 남아들의 문제 행동은 친구들이 이탈적인 행동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응해주는 이탈적 훈련(deviancy training) 과정을 통하여 아동의 문제 행동정도가 더욱 강화될 수 있었다. 또한 Agnew(1991)는 친구가 비행적인 성향을 지닌 경우, 이러한 친구들과 밀접하게 애착된 경우에서만 아동의 비행정도가 심각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두 번째는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가설로 친구의 행동특성이 부정적 또는 긍정적인가에는 관계없이 친밀하고 밀접한 친구관계가 아동에게 유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친구가 공격성이나 위축성과 같은 부정적인 행동특성을 지니고 있더라도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한다면 아동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Berndt *et al.*(1999)의 연구결과는 이러한 가설을 지지해준다. 친구의 사회적 고립과 수줍음 정도는 친구관계가 부정적인 경우에 아동의 위축성을 증가시켰으나 친구관계 긍정적인 경우에는 아동의 사회적 고립과 수줍음 정도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동의 친구관계가 도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적인 측면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제시한다.

친구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아동의 성에 따라 친구관계의 경험에 차이가 있다는 일관적인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예를 들어, 남아들은 여러 명의 남아들로 구성된 대집단을 구성하고 운동과 같은 활동을 즐기는데 비하여, 여아들은 친한 친구와 같은 단짝 친구관계를 선호한다(Bukowski, Hoza, & Boivin, 1994). 친구관계의 질에서도 성차가 보고되고 있는데 남아에 비해 여아들의 친구관계는 더 밀접하고 친밀하며 배타적인 특성을 보이며(Bukowski *et al.*, 1994), 누구와 단짝친구인지에 대해 관심을 더 많이 보인다(Bierman, 2004).

따라서 본 연구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공격성과 위축성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특성에서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사이의 공격성 및 위축성에서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과 위축성과 같은 행동특성이 아동의 도래 거부에 미치는 독립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친구관계 질과의 상호작용 영향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즉 친구

관계 질의 수준에 따라 친구의 위축성 및 공격성이 아동의 도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기초로 하여 친구관계 중 아동들이 맺고 있는 특정한 한 명의 아동과 밀접하고 친밀한 가장 친한 친구관계(best friendship)에 초점을 두고, 남아 아동을 구분하여 성별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상의 연구 목적 하에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은 성별에 따라 유사한가?
- 둘째,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은 성별에 따라 아동의 도래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가?
- 셋째, 아동의 도래 거부는 성별에 따라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에 의해 설명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초등학교 5, 6학년으로 부천시에 위치한 두 곳의 공립 초등학교에서 표집되었다. 학년 별 연구 대상의 수는 5학년 223명과 6학년 248명으로 총 471명이였다. 전체 연구 대상 아동의 성별 구성을 보면 남자 아동은 225(57.1%), 여자 아동은 189명(42.9%)이었다.

2. 측정도구

1) 아동의 공격성 및 위축성

본 연구에서 아동의 공격성과 위축성은 Schwartz, Farver, Chang과 Lee-Shin(2002)의 연구에서 사용한 Peer Nomination Index(PNI)를 사용하였다. 아동들에게 각 학급의 아동 이름이 기재된 명단을 배부한 후 PNI를 이용하여 공격성과 위축성을 측정하는 각 문항에 대하여 적합한 아동을 3명씩 지명하도록 하였다. PNI는 총 8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공격성은 총 4 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다른 아이를 밀거나 때리는 사람)이며 위축성은 총 4 문항(예: 우리 반 아이들 중에서 혼자 노는 사람)으로 측정하였다.

학급 별로 총 인원수에 차이가 있으므로 공격성과 위축성의 표준화 점수를 계산하기 위해 각 변인 별로 학급의 도래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표준화 점수인 z점수로 변환하여, 연구 대상 아동들과 아동의 가장 친한 친구의 위축성과 공격성 점수를 계산하였다. 각 변인별 내적 일치도로 계산한 결과를 보면 공격성은 .89, 위축성은 .86 이었다.

2) 또래 거부

또래 거부는 아동에게 학급의 명단에서 내가 싫어하는 사람 3명을 지명하도록 하여 측정하였다. 아동의 또래 거부 점수는 표준화 점수로 계산하기 위해 학급의 또래로부터 지명된 빈도를 계산하고, 이 점수를 z점수로 변환하여 아동과 친구의 또래 거부 점수를 계산하였다..

3) 친구관계 질

가장 친한 친구를 알아보기 위해 아동들에게 학급의 친구들 중에 나와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하는 또래의 이름을 한 명 쓰도록 하였다. 친구관계의 질은 Friendship Quality Scale(FQS: Bukowski *et al.*, 1994)을 사용하였으며 아동들에게 위에서 기재한 나와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에 대하여 자신이 평가하도록 하였다. FQS는 지원하기(support) 5문항(예: 다른 아이들이 내 뒤에서 나를 홍보하면 내 친구는 나의 편이 되어 준다.), 동료애(companionship) 5문항(예: 우리는 점심 먹은 후에 항상 같이 논다.), 친밀감(intimacy) 5문항(예: 우리는 서로에게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를 한다.),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 4문항(예: 우리는 싸운 후에 쉽게 화해한다.)의 네 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총 문항은 19문항으로 5점 척도이다. 네 가지 하위척도별로 평균을 계산하여 친구관계 질에 대한 점수를 계산하였다. 하위척도별 계산된 내적 일치도를 보면 지원하기 .85, 동료애 .87, 친밀감 .77, 갈등해결은 .89 이다.

3. 연구 절차 및 자료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PNI와 친구관계 질 도구는 본 연구 대상과 동일한 5, 6학년 아동을 10명을 대상으로 사전 검사를 통하여 문항 내용을 점검하였으며, 아동학 전공 교수 2인 으로부터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본 연구에서 자료 수집의 절차를 보면 먼저 연구 대상인 초등학교로부터 본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구한 후 자료 수집을 위해 아동학을 전공한 훈련된 연구보조원이 각 해당 학급을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설문지 작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그 자리에서 수거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연구문제별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에서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 유사성은 상관관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이 아동의 또래거부에 미치는 영향 및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 영향은 위계적 회귀분석결과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 측정된 변인들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한 분석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에 의하면 남아를 대상으로 한 상관관계 결과를 보면, 또래 거부는 남아의 공격성($r = .653, p < .001$) 및 위축성($r = .338, p < .001$)뿐만 아니라 친구의 공격성($r = .206, p < .01$) 및 위축성($r = .266, p < .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다. 반면에 또래 거부는 친구관계 질의 하위척도인 갈등해결($r = -.143, p < .05$), 지원하기($r = -.167, p < .01$) 및 동료애($r = -.140, p < .05$)와는 부적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를 보면, 남아와 유사하게 여아의 또래 거부는 여아의 공격성($r = .602, p < .001$) 및 위축성($r = .193, p < .01$)과 친구의 공격성($r = .146, p < .05$) 및 위축성($r = .285, p < .0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친구관계 질의 하위척도와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다.

<표 1> 측정 변인들의 상관관계

측정변인	1	2	3	4	5	6	7	8	9
1. 또래 거부		.602***	.193**	.146*	.285***	.029	-.133	-.034	-.028
2. 아동의 공격성	.653***		-.102	.364***	.043	-.042	-.014	.046	.069
3. 아동의 위축성	.338***	-.081		-.060	.198**	-.142*	-.372***	-.240***	-.271***
4. 친구의 공격성	.206**	.335***	-.168*		-.154*	-.195**	-.065	-.073	-.035
5. 친구의 위축성	.266**	-.156*	.295***	-.143*		-.015	-.080	-.163*	-.081
6. 갈등해결	-.143*	.006	-.166**	-.056	-.079		.352***	.357***	.342***
7. 지원하기	-.167**	.059	-.288**	.082	-.212**	.327***		.311***	.314***
8. 동료애	-.140*	.107	-.252***	.132*	-.181**	.329***	.346***		.404***
9. 친밀감	-.102	.114	-.235***	.095	-.110	.396***	.365***	.300***	

남아 상관계수 = 대각선 아래, 여아 상관계수 = 대각선 위
* $p < .05$. ** $p < .01$. *** $p < .001$.

〈표 2〉 아동의 또래 거부에 대한 친구의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남아		여아	
		β	ΔR^2	β	ΔR^2
1단계	아동의 공격성	.650***	.423	.616***	.379
2단계	친구의 공격성	.116*	.012	.118*	.012
3단계	갈등해결	-.066	.043	.043	.015
	지원하기	-.044		-.211	
	동료애	-.064		.022	
4단계	친밀감	.082		.129	
	친구의 공격성×지원하기	.044	.002	.991	.033
	친구의 공격성×친밀감	-.266		-1.728**	
	친구의 공격성×갈등해결	-.216		-1.015*	
	친구의 공격성×동료애	.350		.991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의 유사성

연구문제 1을 분석하기 위하여 〈표 1〉에서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의 공격성과 위축성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 사이에서 공격성과 위축성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여아의 경우에도 공격성 및 위축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이는 남아 아동 모두 공격성과 위축성의 정도가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또래와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이 또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

연구문제 2를 분석하기 위하여 아동의 또래 거부에 대한 친구의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다중공선성을 살펴보면, VIF는 1에 근접하여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표 1〉에서 제시된 상관관계의 분석결과를 보면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 간의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으므로 회귀분석에 투입된 독립변인들은 개별 사례 값에서 평균값을 뺀 평균 중심화된 값(mean-centering)으로 계산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Aiken & West, 19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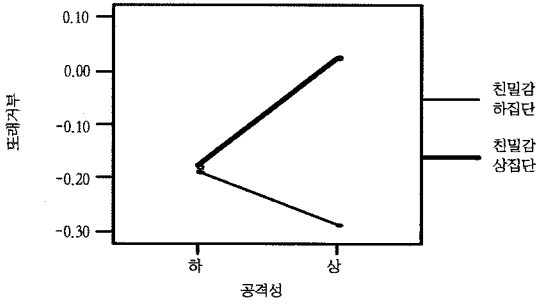
〈표 2〉에 의하면 남아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의 결과를 보면,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아동의 공격성과 친구의 공격성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아동의 공격성은 피해를 42.3% 설명해주었으며($\beta = .650, p < .001$), 2단계의 친구의 공격성은 추가로 1.2%를 설명하였다($\beta = .116, p < .05$). 즉 아동의 공격성을 통제 한 후에도 친구의 공격성 정도가 높을수록 아동이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4단계에 투입된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은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아동의 공격성과 친구의 공격성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친구의 공격성은 친밀성 및 갈등해결과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아동의 공격성은 피해를 37.9% 설명해주었으며($\beta = .616, p < .001$), 2단계의 친구의 공격성은 추가로 1.2%를 설명하였다($\beta = .118, p < .05$). 4단계에 투입된 친구의 공격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은 3.3%를 추가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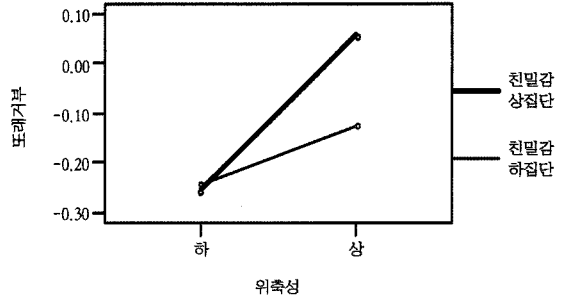
4. 또래 거부에 대한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

여아만을 대상으로 친구의 공격성과 친밀감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친밀감 점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친밀감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친구의 공격성이 또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해본 결과, 친밀성 상집단의 경우, 친구의 공격성은 아동의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예언해주었다($\beta = .548, p < .01$). 반면에 친밀감 하집단의 경우에는 친구의 공격성은 아동의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041, ns$). 즉 여아들의 경우, 공격적인 성향이 높은 친구와 친밀감이 높은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에 또래들로부터 거부될 수 있으나, 친밀하지 않은 관계인 경우에는 친구의 공격성 정도가 아동의 또래 거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 1〉에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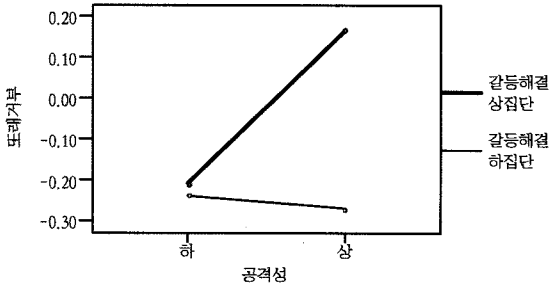
또한 여아만을 대상으로 친구의 공격성과 갈등해결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갈등해결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하집단으로 구분하고 상하집단별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갈등해결 상집단의 경우 친구의 공격성은 아동의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나($\beta = .298$,



〈그림 1〉 여아의 또래거부에 대한 친구의 공격성과 친밀감의 상호작용



〈그림 3〉 여아의 또래거부에 대한 친구의 위축성과 친밀감의 상호작용



〈그림 2〉 여아의 또래거부에 대한 친구의 공격성과 갈등해결의 상호작용

$p < .01$, 갈등해결 하집단에서는 친구의 공격성이 또래 거부에 대한 유의미한 예언력이 나타나지 않았다($\beta = -.044$, ns).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남녀별로 또래 거부에 대한 친구의 위축성과 친구관계 질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었다. 〈표 3〉에 의하면 남아의 경우,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아동의 위축성과 친구의 위축성으로 나타났다.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아동의 위축성은 또

래 거부를 9.1% 설명해주었으며($\beta = .320$, $p < .001$), 2단계의 친구의 공격성은 추가로 2.7%를 설명하였다($\beta = .171$, $p < .05$). 즉 남아의 위축성을 통제한 후에도 친구의 위축성 정도가 높을수록 남아들은 또래로부터 거부를 당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반면에 4단계에 투입된 위축성과 친구관계 질은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여아를 대상으로 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설명해주는 변인은 2단계에 투입된 친구의 위축성이 독립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또한 친구의 위축성은 친구관계의 질에서 밀접성과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1단계에 통제변인으로 투입된 여아의 위축성은 거부를 유의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2단계의 친구의 위축성은 추가로 8.1%를 설명하였다($\beta = .290$, $p < .01$). 4단계에 투입된 친구의 위축성과 밀접성의 상호작용은 5.7%를 추가 설명하였다.

여아의 경우, 친구의 위축성과 친밀감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친밀감 평균값을 기준으로 친밀성 상하집단을 구분하고 집단별로 친구의 위축성이 또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을 통하여 비교해본 결과, 친밀감 상집단의 경우, 친구의 높은 위축성은 여아의 또래 거부를 유의하게 예언해주었다($\beta = .352$, $p < .001$). 반면에 친밀감 하집

〈표 3〉 아동의 또래 거부에 대한 위축성과 친구관계 질의 회귀분석

단계	독립변인	남아		여아	
		β	ΔR^2	β	ΔR^2
1단계	아동의 위축성	.320***	.091	.112	.012
2단계	친구의 위축성	.171*	.027	.290***	.081
3단계	갈등해결	-.107	.014	.030	.021
	지원하기	-.057		-.179	
	동료애	.013		.098	
4단계	친밀감	.095		.153	
	친구의 공격성×지원하기	-.598	.021	-1.672	.057
	친구의 공격성×친밀감	.186		.602	
	친구의 공격성×갈등해결	-.274		-.180	
	친구의 공격성×동료애	.347		2.058*	

* $p < .05$. ** $p < .01$. *** $p < .001$.

단의 경우에는 친구의 위축성은 여아의 또래 거부를 유의미하게 예언하지 못하였다($\beta = .114, ns$).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결과는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IV. 논의

본 연구는 남녀 아동과 가장 친한 친구와의 행동특성에서 유사성을 살펴보고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질이 또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과 같은 행동특성의 독립적인 영향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 영향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이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맺고 있는 아동들 사이의 공격성 및 위축성에서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관계수를 사용하여 분석해본 결과를 보면 공격성 및 위축성 모두에서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남녀 아동 모두 자신과 공격성 또는 위축적인 성향이 유사한 또래와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들 사이에 친구관계를 형성 할 때 유사한 행동 특성을 보이는 아동들끼리 친구가 된다는 Haselager *et al.*(1998)의 유사상종(homophily)의 원리를 지지해 주는 결과이다. 공격성과 위축성은 상호 대조적인 행동이나 발달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 소수의 아동에게서 관찰될 수 있는 행동 특성이므로 이러한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은 학급 내에서 쉽게 서로를 인식하고 어울릴 수 있을 것이다(Rubin *et al.*, 2006).

아동들은 학급의 교우들 중에서 서로에 대한 호감과 선호를 기초로 하여 자발적으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공격성은 학급 내에서 일반적인 아동들에게 위협적이고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며 거부되는 행동이나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유사한 친구관계에서는 이러한 행동이 수용되고 지지를 받을 수 있으므로 유사한 공격성을 보이는 아동들은 서로를 선호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격적인 성향이 유사한 친구관계인 아동들 사이에서는 친구관계 경험은 아동의 공격적인 성향을 유지하고 더욱 강화해주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축적인 아동들은 또래들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면서 자신을 또래들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시키는 성향을 보이게 되므로(Gazelle & Rudolph, 2004) 일반 아동들과 친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 또한 위축적 아동들은 말이 없고 행동 억제적 특성을 보이므로 학급의 아동들이 자신의 친구로 위축적인 아동을 선호하지 않을 수 있다(Fordham & Stevenson-Hinde, 1999). 반면에 친구관계인 위축적인 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은 서로의 유사성으로 인하

여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요구 정도가 높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즉 공격성과 위축성과 같은 행동 특성의 유사성에 대한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가 행동 특성을 유지하게 해주는 사회적 맥락일 수 있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다. 또한 행동 특성별로 상관관계의 정도를 비교해보면 남녀아동 모두 위축성에 비해 공격성에서 상관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아동의 행동 특성 중 반사회성 및 공격성 측면에서 친구의 유사성의 정도가 가장 높다는 Haselager *et al.*(1998)의 연구결과를 지지해 준다.

둘째, 아동의 또래 거부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보면, 가장 친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이 아동의 또래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는 아동 자신뿐만 아니라 친구의 행동 성향이 추가적으로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를 야기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입증해 준다. 이는 아동이 학급의 여러 교우들 중에서 자신과 유사한 성향을 보이는 한 명을 친한 친구로 선택하면 이러한 친구관계가 아동의 또래 집단에서의 사회적 지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회적 환경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관계(best friendship)에 초점을 두었는데 아동기 후반에 아동들은 다른 친구들보다도 이러한 단짝 친구와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므로 이러한 친구의 영향력이 더 클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과 친구관계 질의 상호작용 영향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여아의 경우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남아와 달리 여아의 경우에만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이 또래 거부에 미치는 정도를 친구관계의 질이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남아들과 비교해서 여아들은 친한 친구와의 이원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친밀한 상호작용을 선호하며, 또한 친구관계의 질에서도 남아와 비교해 볼 때 여아들은 더욱 친밀하고 밀접하며 배타적인 관계를 유지하므로(Bukowski *et al.*, 1994) 이에 근거해 볼 때 여아의 경우에 가장 친한 친구관계의 질적인 측면이 친구의 행동특성의 영향력을 조절하는데 더 큰 효과를 보일 수 있을 것이다.

여아의 경우 유의미한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해보면 친구의 공격성은 친밀성 및 갈등해결과 상호작용하여 여아의 또래 거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밀성과 갈등해결의 정도가 평균 이상으로 높은 경우에만 친구의 높은 공격성 정도가 여아의 또래 거부에 영향을 주었으나 친밀성과 갈등해결의 정도가 평균 이하로 낮은 경우에는 이러한 영향력이 없었다. 이는 공격적인 친구와 밀접하고 갈등해결을 잘하는 높은 친구관계의 질을 유지하는 경우에만 친구의 공격성이 또래거부를 야기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이 공격적인 친구와의 밀접하고 갈등이 없는 관계를 맺고 있다면

아동들은 학교에서 친밀한 상호작용을 하며 서로의 행동을 모방하게 되므로 더욱 빈번하게 이탈적인 행동과 같은 부정적인 사회적 행동에 참여하는 정도가 높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또래들로부터 거부를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친구의 위축성의 경우에도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친밀감의 정도가 친구의 위축성이 아동의 또래 거부에 미치는 영향력을 조절하였다. 즉 여아가 위축적 성향이 높은 친구와 평균 이상의 높은 수준의 친밀한 친구관계를 형성한 경우에는 친구의 위축성이 또래 거부에 영향을 미쳤으나 반면에 친밀감이 낮은 경우에는 영향력이 없었다. 친밀감은 상대방의 생각과 욕구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해주고, 자신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자아노출(self-disclosure)을 포함하므로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측면이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7). 그러나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아동들 사이의 친밀한 친구관계는 배타적인 관계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학급의 사회적으로 유능한 다른 교우들과는 어울릴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친구관계의 높은 질이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적인 특성을 극대화시키고 이로 인하여 또래 집단으로부터 거부되는 정도를 더 높일 수 있다는 확대가설을 지지해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아동들이 자신과 유사한 공격적이거나 위축적인 특성을 보이는 또래와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맺으며 이러한 친구의 공격성 및 위축성이 아동의 또래 거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환경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친구관계의 발달적 기능은 단순히 친구의 유무뿐만 아니라 친구가 있다면 어떤 특성을 보이며 또한 이 친구와 관계의 질적 수준에 따라 친구의 위축성 및 공격성과 같은 행동 특성 영향이 감소되거나 또는 강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령기 아동을 대상으로 또래 거부에 대한 중재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하여 거부아의 사회적 기술을 향상시키는 개별적인 차원의 접근뿐만 아니라 이 아동들이 상호작용하는 친구 환경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또한 일반적으로 친밀하고 밀접한 친구관계가 아동의 사회성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왔으나, 친구의 행동특성에 따라 친구관계 질의 기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구관계의 발달적인 기능을 보다 심도 있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친구관계의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려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해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고 추후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면 첫째, 본 연구는 횡단적 연구 설계에 기초한 결과이므로 친구관계의 영향을 인과 관계로 해석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다. 따라서 종단적 연구 설계를 통하여 친구의 행동특성 및

친구관계 질의 영향력에 대한 인과관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친구관계의 안정성이 친구관계의 영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인지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아동기 후반의 가장 친한 친구관계에 초점을 두었으며, 친구관계 질의 중재적 영향에 대한 성차가 분명하였다. 따라서 추후연구에서는 남아들의 또래 관계에서 전체 또래관계망의 영향력이 중요하므로(Bukowski et al., 1994), 이를 규명하는 연구를 통하여 남아들의 또래 관계의 영향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친구관계 질을 측정하는 척도가 여아들에 비해 남아들의 친구관계 특성을 반영하는데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아동의 성별에 따른 친구관계 특성을 보다 차별화하여 측정하는 도구의 개발이 추후연구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또래 거부를 측정하는 또래 지명법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편적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으나 아동들에게 부정적인 지명을 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가장 친한 친구관계를 상호지명이 아닌 아동의 지각에 기초하여 측정하였으므로 상호지명법을 적용한 추후 연구가 요구된다.

■ 참고문헌

- 나유미(2000). 또래에 대한 아동의 내적 표상 모델과 또래 수용 및 친구관계 질. *아동학회지*, 21(4), 143-158.
- 문은정, 심희옥(2001). 아동의 친한 친구와의 관계와 자아지각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2(4), 99-113.
- 신유림(2007). 아동의 사회적 위축성과 친구관계. *아동학회지*, 28(5), 193-207.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Agnew, R.(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in delinquency. *Criminology*, 29(1), 47-72.
- Aiken, L. S., & West, S. G.(1991). *Multiple regression: Testing and interpreting interactions*. Newberry Park, CA: Sage.
- Berndt, T. J., Hawkins, J. A., & Jiao, Z.(1999). Influences of friends and friendships on adjustment to junior high school. *Merrill Palmer Quarterly*, 45(1), 1-23.
- Berndt, T. J., & Perry, T. B.(1986). Children's perceptions of friendships as supportive

- relation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2(5), 640-648.
- Bierman, K. L.(2004). *Peer rejection*. New York: The Guilford Press.
- Bukowski, W. M., Hoza, B., & Boivin, M.(1994). Measuring friendship quality during pre- and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1(3), 471-484.
- Cairns, R. B., Cairns, B. D., Neckerman, H. J., Gest, S. D., & Garipey, J. L.(1988). Social networks and aggressive behavior: Peer support or peer reje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6), 815-823.
- Dishion, T. J., Andrews, D. W., & Crosby, L.(1995). Antisocial boys and their friends in early adolescence: Relationships characteristics, quality, and interactional process. *Child Development*, 66(1), 139-151.
- Epstein, J. L.(1989). Examining theories of adolescent friendship. In J. L. Epstein & N. L. Karweit (Eds.), *Friends in school*. San Diego, CA: Academic Press.
- Fordham, K., & Stevenson-Hinde, J.(1999). Shyness, friendship quality, and adjustment during middle childhood.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 40(5), 757-768.
- Gazelle, H., & Rudolph, K. D.(2004). Anxious solitude and peer exclusion: A diathesis-stress model of internalizing trajectories in childhood. *Child Development*, 74(1), 257-278.
- Grotzpete, J. K., & Crick, N. R.(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6), 2328-2338.
- Haselager, G. J. T., Hartup, W. H., Van Lieshout, C. F. M., & Riksen-Waleaven, J. M. A.(1998). Similarities between friends and nonfriends in middle childhood. *Child Development*, 69(4), 1198-1208.
- Ladd, G. W., & Emerson, E. S.(1984). Shared knowledge in children's friendships. *Developmental Psychology*, 20(5), 932-452.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1997). Classroom peer acceptance, friendship, and victimization: Distinct relational systems that contribute uniquely to children's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8(6), 1181-1197.
- Medrich, E. A., Rosen, J., Rubin, V., & Buckley, S.(1982). *The serious business of growing up*. Berkeley, C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Rubin, H. R., Wojslawowicz, H. C., Rose-Krasnorm L., Booth-Laforce, C., & Burgess, K. B.(2006). The best friendships of shy/withdrawn children: Prevalence, stability, and relationship quality.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4(2), 139-153.
- Schwartz, D., Farver, J., Chang, L., & Lee-Shin, Y.(2002). Victimization in South Korean children's peer group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0(2), 113-125.

접 수 일 : 2008년 6월 25일

심사시작일 : 2008년 7월 4일

게재확정일 : 2008년 9월 9일